

정미사행을 전후한 화원 이홍규의 행적 및 활동

이 정 은*

< 차 >

- I.
- II. 사행 이전 활동
- III. 사행 당시 남긴 이홍규 관련 기록
- IV. 사행 이후 행적 및 활동
- V. 맺음말

국문요약

임란 이후 처음 시작된 정미사행의 수행화원으로 차출된 인물이다. 조선은 중국으로는 연행사를 파견하고, 일본으로는 조선통신사를 파견했다. 통신사는 매년 수차례씩 방중하는 연행사와는 다르게 짧게는 10년 길게는 48년 간격으로 열 두 차례 방일했다. 12회의 조선통신사 동안 12명의 수행화원이 차출되었고 정미사행은 전쟁 이후 조·일 양국 사이에 외교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재개된 사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모로 긴장감이 감도는 사행이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정미사행 수행원은 신중하고 엄격한 발탁 기준에 선발된 인원이었고 이홍규도 정미사행 선발기준에 발탁된 단 한명의 수행화원이었다.

정미사행 수행화원 이홍규는 한 개인의 화가로서보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원이라는 공적 입장에 있었고, 그의 활약도 그런 범주 내에서 평가되어 왔다. 개인 작품이 현존하지 않는 수행화원 이홍규의 행적 범주를 좀 더 확산시켜 그의 가문적 배경과 도화서 내에서의 의궤 활동까지 두루 조망해 봄으로써 수행화원 이전과 이후의 내연적·외연적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이홍규, 정미사행, 조선통신사 화원

논문은 2010년 한국예술학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 범어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홍규(李弘弼)의 정미사행 이후 행적(行蹟) 및 활동 73

I. 머리말

이홍규(李泓虬, 1568~?)는 정미사행(丁未使行, 1607)의 수행화원(隨行畫員)이었다. 정미사행은 임진·정유 왜란 이후 조·일, 양국 간의 국교회복을 위해 재개된 다소 정치적 문화사절단이다. 물리적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보았던 조선 정부는 통신사행을 계기로 가상 적국으로서 일본의 정세를 탐색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조선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통신사행(通信使行)으로 파견되는 인원들은 각자 해당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갖춘 이들로 구성했다. 중국으로 파견된 연행사(燕行使)처럼 통신사 수행원들 역시 사행 이후 개인적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했었는데, 이는 수행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행기록 명단에 기록된 수행화원은 총12명이었고 이홍규도 예외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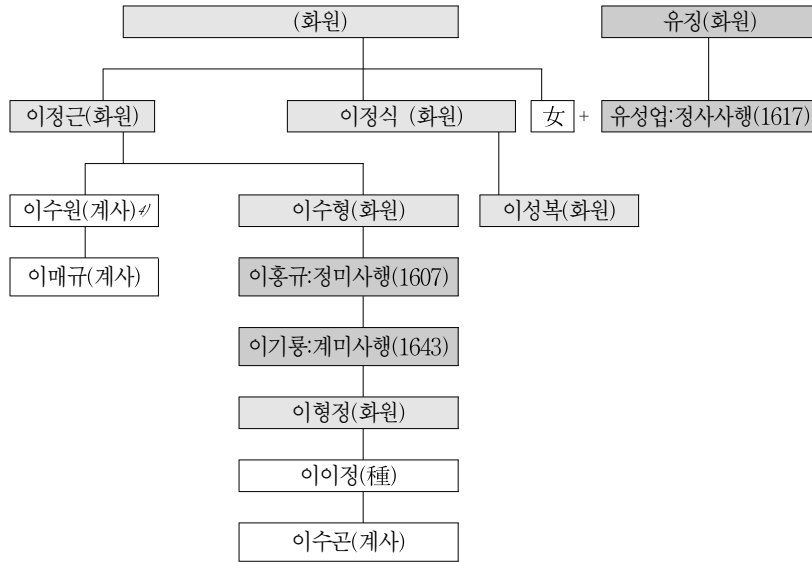
그간 진행되어온 통신사 수행화원의 연구는 대체로 교류사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홍선표·서윤정·유근형·정은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¹⁾ 수행화원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김명국(金明國, ?~?)·한시각(韓時覺, 1621~?)·이성린(李聖麟, 1718~1777)·김유성(金有聲, 1725~1775이후)·이의양(李義養, 1768~?) 등이 진행되었다.²⁾

1) 홍선표,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학연구』 205, 한국미술사학회, 1995 ; 홍선표,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6, 한국미술연구소, 1998 ; 서윤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005 ; 유근형, 「朝鮮時代 南畫가 近代美術에 미친 영향에 대한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은주, 「계미(1763)통신사행의 화원 활동 연구」, 『정신문화연구』34권 2호 통권123호, 2011 ;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 문화연구』6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 이태호,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정선 眞景山水의 先例로서 17세기의 實景圖, 『精神文化研究』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이건설,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雪灘 韓時覺의 實景山水畫」, 國立中央博物館, 1993 ; 권혜은, 「朝鮮後期《槎路勝區圖畫集》의 作者와 畫風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 이경화, 「北塞宣恩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54, 한국미술사학회, 2007 ; 이현주, 「한류의 시초: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李聖麟의 사로승구도」, 한국예술평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2008 ; 황은영, 「1811년 신말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에 대하여」, 『강원대학교 강원사학』22:23, 2008 ; 이정은,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研究」,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나영, 「서암 김유성의 회화 연구 (西巖 金有聲의 繪畫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정은, 「金明國의 丙子·癸未通信使行 활동작품 분석」, 『인문논총』27,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이정은, 「乙未通信使行 隨行畫員 韓時覺의 行蹟 및 活動」, 『조선통신사연구』12, 2011 ; 정은주, 「19世紀 初 對淸使行과 燕行圖: 《李信園寫生帖》을 중심으로」, 『명청사학회』, 2015 ; 위순선, 「다니 분초[谷文晁](1763~1840)를 做한 이의양의 산수화」, 『조선통신사연구』19, 조선통신사학회, 2015.

II. 사행 이전 활동

표 1. 화원 이홍규의 가계도³⁾



과견 40년 전, 이홍규는 1568년 화원 이수형(李壽亨)의 아들로 태어났다.³⁾ 그의 집안은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경주(慶州) 李氏 화원가문으로 화원가의 형성은 증조부인 이명수(李明修, 1490~?)로부터 시작됐다. 이명수는 두 아들 이정근(李正根, 1532~?)과 이정식(李正植, ?~?)을 비롯하여 화원 유징(柳澄?~?)과 사돈을 맺어 화원가문을 확장했다. 이명수의 아들 이정근은 부친에 이어 본인과 후손까지 화원가문으로 대를 이어갔다. 정미사행의 수행화원 이홍규는 이정근의 손자이다. 이정근은 화원가문이 중심인 본인집안에서 장남 이수원보다 차남 이수형을 중심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정작 이수형의 화원활동은 알려진 바가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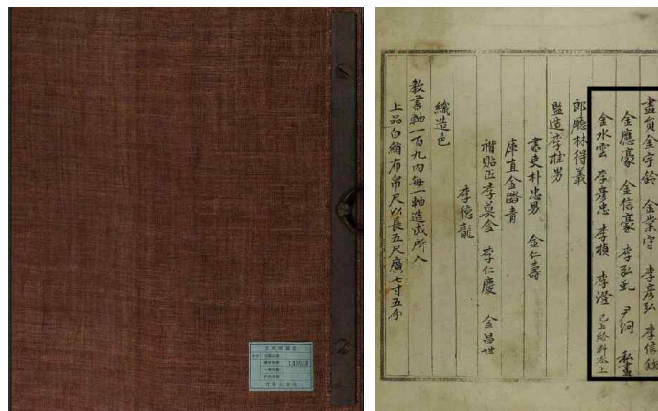
³⁾ 吳世昌, 『權域書畫徵』, 韓國美術研究所, 1998, 469쪽과 서울시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人物篇), 1993, 925쪽을 토대로 하였으며, 중앙일보사의 『山水畫(上)』의 부록에 실린 내용은 安輝濬의 『韓國繪畫史研究』「부록1」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홍순석의 『韓國人名字號事典』에서는 李弘翹와 李起龍은父子사이가 아닌 삼촌과 조카사이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韓國人名字號事典』에서는 그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吳世昌, 『權域書畫徵』, 韓國美術研究所, 시공사, 1998, 469쪽과 서울시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人物篇), 1993, 925쪽을 기초로 하여 가계도를 구성하였다 ;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한국미술연구소, 시공사, 2000, 754쪽, 표5.

⁴⁾ 계사(計士) :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되어 회계 사무를 담당한 중8품의 전문직.

⁵⁾ 吳世昌, 『權域書畫徵』, 韓國美術研究所, 시공사, 1998, 543쪽.

동생이자 이수형의 숙부인 이정식과 숙부의 아들 이성복(李成福, ?~?)의 회원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전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이수형은 본인혈족으로 회원가문을 잇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아들 이흥규의 성장을 도왔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본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이흥규를 정미사행의 수행화원으로 발탁하게 된 이유를 마련했을 것이다.

이흥규는 조선을 대표한 정미사행 수행화원이었다. 이흥규 부친의 노력과 이명수부터 시작된 회원가문의 뒷받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흥규의 그림실력이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그림실력은 사행이전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도 1. 『호성선무청난원종삼공신도감의궤』 필사본 1책262면/126장, 1605년(선조38년), 저주지/홍포, 16면(채색), 41.2×34.7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성부) 中 표지, 50면.

이흥규의 사행 이전 활동 내역은 1605년 『호성선무청난원종삼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清難原從三功臣都監儀軌)』 회원명단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⁶⁸⁾ ‘호성공신도

⁶⁷⁾ 의궤자료에 의하면 이정식은 1601년(선조34)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서 활동 기록이 확인되며, 그의 아들 이성복은 1624년(인조2) 『祭器樂器都監儀軌』 감독관으로 선임되었고, 1632년(인조10) 『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儀軌』 활동과 더불어 1650년(효종1) 『[仁祖]國葬都監都廳儀軌』 참여하였다. 반면, 이흥규의 부친 이수형의 활동기록은 남아 전하지 않다.

⁶⁸⁾ 『扈聖宣武清難三功臣功臣都監儀軌』 下 議政府上 : 1601년(宣祖34) 3월부터 1605년 12월 사이에 扈聖功臣·宣武功臣·清難功臣을 錄勳하고, 正功臣이 될 정도의 공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宣祖에 대한 扈從, 倭軍과의 전투, 李夢鶴의 謀叛 진압에 공로가 있는 인물들을 原從功臣으로 封하고 施賞한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功臣都監에서 편찬하였다. 호성공신도상은 전체적인 형식이나 표현기법에서 17세기 전반 공신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604(선조37)에 제작된 공신상으로는 「이원익초상(李元翼肖像)」, 「정탁초상(鄭琢肖像)」, 「고희초상(高羲肖像)」, 「이충원초상(李忠元肖像)」 등이 있다. 의궤에 참여한 화원이 공신도상을 제작한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까지는 정확히 어떤 공신도상을 어떤 화원을 제작하였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 즉 공신의 초상제작을 수반하고 있다.⁸⁷⁾ 이흥규가 초상화에 능한 회원임을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가 세밀함을 요하는 초상화제작에 선발된 것은 조부 이정근 혹은 그림이 남아 전하지 않는 부친 이수형의 화풍과 화업을 이어 받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통신사는 조선을 대표하는 사절단이었다. 사행에 선발된 회원은 조선의 화단을 대표하는 인물이 선발되기 마련이었다. 곧 통신사행에 선발된 수행회원은 도화서 소속 회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으며 당대 조선의 화단을 대표하는 실력자들임을 알 수 있다.⁸⁸⁾ 이는 이흥규도 다르지 않았으며, 그림실력을 겸비한 회원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사행 이전 단 차례 '호성공신도상' 제작 참여 외엔 별다른 이력이 없던 이흥규가 사행 이후 도화서 내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보아 사행을 통해 이흥규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흥규는 왜란이후 재개된 정미사행의 수행회원으로서, 사행 이후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했던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이흥규의 입지가 다음의 통신사행에 대고모부인 유성업을 참여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며, 이후 자신의 아들 이기룡이 다시 통신사행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회원가문형성에서 보듯이 이들은 동일한 직업집단과의 결속을 통해 조선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특정 가문이 회원가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중추에 통신사 수행회원 출신의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통신사 수행활동으로 인해 도화서 내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던 것을 계기로 역량을 키워나갔던 결과라고 하겠다.

Ⅲ. 사행 당시 남긴 이흥규 관련 기록

임란 후 처음 일본에 파견된 정미사행의 수행회원은 이흥규였다. 정미사행은 전쟁 이후 조·일 양국 사이에 외교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재개된 사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모로 긴장감이 감도는 사행이었다. 그러므로 문화 예술의 교류 보다 일본

⁸⁷⁾ 호성공신교서는 대나무 종이와 비단을 사용해 만들었으며 가로 195cm×세로 39cm의 두루마리 형태이다. 선조가 호성공신에 봉한 1등 2명, 2등 31명, 3등 53명 등 모두 86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두루마리 앞부분은 손상이 있어 완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비단 바탕에 채색을 사용해 그린 초상화는 가로 90m×세로 164cm의 크기이며 족자형태로 표구되었다.

⁸⁸⁾ 『通文館志』6卷, 48쪽, 畫員一員 善畫者極擇.

정세와 분위기를 살피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 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당시 수행화원을 위시한 예술인들의 활약을 전하는 기록은 거의 없다. 또한 일본에도 이홍규의 유작으로 전하는 그림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행시 그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수행화원으로서 그의 역할을 추정해 볼 뿐이다.

표 2. 회답 겸 쇄환사 동사 원역록(回答兼刷還使同 員役錄)

	현 직함 & 인원	명단
상사 (上使)	통정대부 (通政大夫)	여우길(呂祐吉) 자는 상부(尙夫) 정묘년(1567, 명종 22)에 출생. 경인년(1590, 선조 23)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신묘년(1591)에 별시(別試)에 합격. 호는 치계(癡溪),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자제 (子弟)	2원(員)	전 첨사(僉使) 여경축(呂卿軸) · 전 판관(判官) 강원(康遠).
군관 (軍官)	6원	출신 정대남(鄭大男) · 전 현감 정운(鄭濬) · 한량(閑良) 신충선(愼忠善) · 한량 한응룡(韓應龍) · 한량 최애립(崔愛立) 1원은 종사관에게 이송됨. · 종 2명.
부사 (副使)	홍문관교리 (弘文館校理)	경섭(慶遜) 자는 퇴보(退甫), 임술년(1562, 명종 17)에 출생. 경인년(1590, 선조 23)에 사마시에 합격, 같은 해에 증광시(增廣試)에 합격. 호는 칠송(七松),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자제 2원 : 한량 김구주(金九疇) · 한량 김덕린(金德隣).
군관	6원	한량 경시량(慶時亮) · 출신 정겸(鄭謙) · 전 주부(主簿) 한덕남(韓德男) · 출신 김사위(金士偉) · 출신 한사일(韓士逸) · 1원은 종사관에게 이송하였다. · 종 2명.
종사관	전 도사(都事)	정호관(丁好寬) 자는 희율(希栗), 무진년(1568, 선조 1)에 출생. 경자년(1600, 선조 33)에 사마시에 합격, 임인년(1602, 선조 35)에 별시에 합격. 호는 일취(一翫),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자제	1원	한량 매응춘(梅應春).
군관	2원	한량 강득서(姜得瑞) · 한량 입업(林業) · 종 2명.
역관 (譯官)	6원	당상 김효순(金孝舜) · 박대근(朴大根), 상통사(上通事) 한덕남(韓德男), 압물통사(押物通事) 양대복(梁大福) · 최의길(崔義吉), 한통사(漢通事) 박응몽(朴應夢).
의관 (醫官)	2원	치종교수(治腫教授) 박인기(朴仁基) · 혜민 직장(惠民直長) 신춘남(辛春男).
학관 (學官)	1원	양만세(楊萬世).
화원 (畫員)	1원	이홍규(李弘弼).
서사원 (書寫員)	1원	변철수(卞鐵壽).
이상 각원(各員)의 종 각 1명으로 함께 28명.		

(京砲手)	4명	김석년(金碩年)·길운(吉雲)·강득남(姜得男)·이천우(李天祐).
동래소통사(東萊小通事)	4명	김군만(金君萬)·김덕손(金德孫)·최복만(崔福萬)·김순개(金順介).
취적(吹笛)	1명	서봉(徐鳳) 경주(慶州).
상사의 소속		
소동(小童)	2명	김운란(金雲蘭) 경주(慶州), 안계일(安戒一) 경주.
도훈도(都訓導)	1명	정억수(鄭億壽) 경주.
취수(吹手)	6명	윤옥(尹玉) 울산(蔚山)·김벽춘(金碧春) 경주·한택(韓擇) 청도(淸道)·김질동이(金叱同伊) 영천·조춘화(曹春化) 울산·유명(劉命) 경주.
나장(羅將)	4명	김억(金億) 경주·방춘복(房春福) 영천·이응남(李應男) 영천·박언기(朴彦起) 영천. 부사의 소속
소동	2명	이성회(李星會) 산음(山陰)·조계업(趙繼業) 함안(咸安).
도훈도	1명	김극수(金克壽) 김해(金海).
취수	6명	이춘세(李春世) 거제(巨濟)·서금이(徐金伊) 김해·강후동(姜厚同) 곤양(昆陽)·김난기(金蘭己) 동래(東萊)·박윤남(朴允男) 합천(陝川)·황흑매(黃黑梅) 성주(星州).
나장	4명	박연해(朴連海) 남해(南海)·김금복(金今福) 연일(延日)·김영복(金永福) 청주(淸州)·이줄이(李埴伊) 흥해(興海).
1선(一船)	사공(沙工)4명	김백(金伯) 통영(統營)·송문세(宋文世) 통영·고쌍걸(高雙乞) 통영·삼석(三石) 통영·격군(格軍) 1백 명.
2선(二船)	사공(沙工)4명	김담련(金淡連) 통영·김귀인(金貴人) 통영·손범(孫凡) 통영·김연부(金連富) 통영·격군 1백 명.
3선(三船)	사공(沙工)3명	최잇퐁(崔懿同) 순천(順天)·김금호(金今浩) 흥양(興陽)·김춘색(金春色) 순천·격군 80명.
4선(四船)	사공(沙工)3명	김막걸(金莫乞) 동래·김사동(金士同) 부산·최아산이(崔牙山伊) 부산·격군 80명.
사후(伺候)	1선 사공 2명	최점동(崔點同) 통영·김안세(金安世) 통영·격군 10명.

『(海槎錄)』下 에 실린 수행원 명단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양에서 구성된 수행원과 지방에서 구성된 수행원이 있었음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색이 사행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⁰⁾ 더불어 정미사행 2년 전 중국으

¹⁰⁾ 경주에서 취사공은 부산과 통영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연행사를 다녀온 학관 양만세를 비롯하여 1604년 방일하여 포로쇄환에 큰 공로를 세운 역관 김효순, 박대근 등 사행경험과 실전능력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었다.¹¹⁾ 정미사행 수행원은 신중하고 엄격한 발탁 기준에 선발된 인원이었고 이홍규도 정미사행 선발기준에 발탁된 단 한명의 수행화원인 것이다.

『선조실록(宣祖實錄)』 1606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대동할 군관(軍官)·역관(譯官)·의원(醫員)·화원·사자관(寫字官)들은 모두 직책을 맡아 의관을 갖추어 입는 사람들로서, 멀리 이역에 가는 일이 가까운 서울에 가는 것과 비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적들이 볼 때에 아주 매물찰 뿐 아니며, 몸에 지니는 행장도 보아 줄 사람이 없게 되면 사세가 극히 군색스러울 것입니다. 더구나 황신(黃愼)의 사행 때에도 이미 데리고 간 적이 있으니, 지금 감손(減損)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¹²⁾

사행을 준비하면서 여우길(呂祐吉)이 주청한 대목이다. 당시 역관·화원·의원·사자관 등 수행원들의 노비를 대동시키지 말라는 하명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에

11) 『醒所覆瓿叢』, 18권 文部 15 丙午紀行. 을사년(1605, 선조38) 겨울 명(明) 나라 황제의 장손이 탄생하였다. 황제는 한림수찬(翰林修撰) 주지번(朱之蕃)과 형과도급사(刑科都給事) 양유년(梁有年)을 파견하여 조서를 받들고 오게 하였다. 나는 그때 요산(遼山)의 직을 그만두고 서울집에 있었는데 원집사 유공 근(柳公根)이 상계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병오년(1606, 선조39) 정월 초6일에 의흥위 대호군(義興衛大護軍) 직(職)을 계수받았다. 이달 21일 조정에 하직 인사를 하였다. 동료(同僚) 필선(弼善) 이지완(李志完)은 어머니를 뵈러 성천(成川)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나와 전적(典籍) 조희일(趙希逸)만이 따랐다. 김남창(金南窓)은 제술(製述)로, 진사(進士) 백진남(白振南)은 서자(書字)로 함께 따르고, 통역관 표헌(表憲)·이해룡(李海龍)·박인상(朴仁祥)·진예남(秦禮男)·이운상(李雲祥)·신계도(申繼燾)와 이문학관(吏文學官) 이재영(李再榮)·양만세(楊萬世)와 사자관(寫字官) 이해룡(李海龍)·송효남(宋孝男)과 화원(畫員) 이정(李楨), 서원(書員) 이자관(李自寬)이 따랐다. ; 宣祖 207卷, 40年(1607 丁未 / 명 만력(萬曆) 35年) 1月 14日(戊寅): 左副承旨柳潤以兵曹言啓曰: “備邊司啓辭: ‘備忘記: 『在前對馬島往還, 或有論賞之事 今此全繼信論賞事, 參酌施行。』事, 傳教矣。全繼信等往來馬島, 不無其勞, 依例論賞, 果爲允當。令該曹稟旨處置宜當。敢啓。’ 傳曰: ‘允。’事, 傳教矣。考前例則庚子年東萊人軍功正金達、軍功參奉朴希根, 對馬島往來後, 金達陞堂上; 朴希根陞奉事, 一行下人, 別無論賞之事。壬寅年堂上全繼信、前萬戶孫文或、司譯院正金孝舜, 對馬島往來後, 全繼信因特命, 僉知除授; 孫文或以其時承傳, 甲辰年陞堂上; 金孝舜以其時承傳, 乙巳年陞堂上, 一行下人等, 令本道, 各一年復戶云。今次則全繼信已經實僉知, 朴大根又是堂上之官, 無可施之賞。譯官判官李彥瑞, 似當本衙內, 高品職除授; 軍官下人等, 似當或禁軍除授; 或差等復戶, 而係干恩典, 自下未敢輕議。上裁施行何如?” 傳曰: “允。全繼信、朴大根僉知除授, 以酬其勞。” 선조실록에 의하면, 1604년 대마도를 다녀온 뒤 김효순은 그때의 승전으로 을사년에 당상으로 승품되었으며, 박대근은 또 당상의 관원이어서 벼풀 만한 상이 없으며, ... 중략.

12) 宣祖 206卷, 39年(1606 丙午) 12月 22日(丙辰) 1번째 기사, “臣所帶軍官、譯官、醫員、畫員、寫字等官, 皆是有職衣冠之人, 遠赴異域, 實非赴京便近之比 奴子不爲帶去, 則非徒賊人所見, 極爲埋沒, 隨身行李, 看護無人, 事勢極爲窘迫 況 黃愼 之行, 既爲帶去, 則今不可減損.

명령을 철회하고 대동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이다. 그 이유는 관복까지 갖추어 입은 이들의 위신을 세워 일본인들이 낮춰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맡은 바 직책이 주어졌고, 그에 상응하여 관복을 입고 가도록 했다.

화원으로서 위신을 세워 수행해야 할 직책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나는 조선의 뛰어난 화풍을 일본에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지형과 문물을 살펴 그것을 스케치하는 것이다.¹³⁾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 조·일관계가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 일본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이 사행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수한 조선의 기풍으로 상대국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정미사행의 전략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에 이홍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행에서 화원의 위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결코 적지 않은 일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IV. 사행 이후 행적 및 활동

대체로 사행 이후 이홍규의 국내 활동은 의궤제작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정미사행 수행화원으로 활동한 이홍규는 귀국 이후에도 국내활동을 이어갔다. 이홍규의 국내활동 기록은 의궤를 통해 확인된다.

아래는 이홍규의 귀국 후의 의궤활동에 대한 자료를 도표화 한 것이다.¹⁴⁾

13)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畫員의 派遣과 役割』, 『한국미술사학회』 205, 미술사학연구, 1995, 15쪽.

14) 『宣祖國葬都監一房儀軌』·『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二房儀軌』·『懿仁王后仁穆王后上尊號中宮殿王世子冊禮都監儀軌』·『祭器都監儀軌』·『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光海君日記』·『光海君尊崇都監儀軌』·『元宗禮葬都監儀軌』·『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 1627년 『[昭顯世子]嘉禮班次』는 정문연, 奎章閣所藏儀軌 해제, 981~983쪽; 한영우, 『朝鮮王朝 儀軌 (국가의례와 그 기록)』, 一志社, 2005, 91쪽, 각주18번 참조; 『昭顯世子嘉禮班次圖』 제작에는 柳成業을 비롯하여 金明國(丙子使行·癸未使行)과 李起龍(癸未使行) 또한 참여하였다. 하지만 柳成業과 함께 참여한 『昭顯世子嘉禮班次圖』는 金明國과 李起龍의 사행 이전활동이므로 본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1638년 『[仁祖壯烈后]嘉禮都監儀軌』의 어람본(193장)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고, 奎章閣에는 강화부분(164장)이 있다. 나머지 3건은 행방을 알 수 없다. 프랑스 儀軌에 대해서는 신병주·김문식·이종묵·정경희·김혁, 『파리 國立圖書館 所藏 外 奎章閣儀軌 조사연구』, 외통부, 2003, 한영우, 『朝鮮王朝 儀軌 (국가의례와 그 기록)』, 一志社, 2005, 114쪽, 각주 53번 참조; 김중수, 『1645년(인조 23) 왕세자 책봉과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 『奎章閣所藏儀軌 해제집』3, 서울대 奎章閣,

표 3. 이흥규의 사행 이후 의례제작 및 도화서 활동

사행 이후 의례제작 및 도화서 활동	
1608년	선조국장도감일방의궤(宣祖國葬都監一房儀軌) ¹⁵⁾
1610년	선조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이방의궤(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二房儀軌) ¹⁶⁾
	의인왕후인목왕후상존호증궁전왕세자책례도감의궤(懿仁王后仁穆王后上尊號中宮殿王世子冊禮都監儀軌) ¹⁷⁾
1612년	제기도감의궤(祭器都監儀軌) ¹⁸⁾
1615년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¹⁹⁾
1616년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²⁰⁾
1619년	회회청(回回靑) 무역
1621년	광해군존숭도감의궤(光海君尊崇都監儀軌) ²¹⁾
1627년	원종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 ²²⁾
1635년	원종대왕인현왕후부묘도감의궤(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²³⁾
1645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²⁴⁾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 ²⁵⁾

, 2005 ; 한영우, 『朝鮮王朝 儀軌 (국가의례와 그 기록)』, 一志社, 2005, 116쪽.

15) 『宣宗昭敬大王 國葬都監儀軌』 萬曆三十六年八月 日 : 본 의례는 선조의 국장시 각종 상여 등의 장례 물품의 제작을 담당한 국장도감일방의 업무를 기록한 보고서이다.

16) 『宣宗大王 懿仁王后 祔廟都監二房儀軌』 萬曆三十八年庚戌四月十一日 : 1610년(광해군 2) 선조(1552~1608)와 의인왕후 박씨(懿仁王后 朴氏, 1555~1600)를 부묘(祔廟)한 기록 중 부묘도감 이방이 담당한 업무를 정리한 의례이다.

17) 『懿仁王后上尊號大妃殿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冠禮時冊禮都監儀軌』 萬曆三十八年庚戌 月 日 : 1610년(광해군2) 선조의 비인 의인왕후 박씨(懿仁王后 朴氏, 1555~1600)와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 金氏, 1584~1632)에게 존호를 올리고, 세자빈 류씨(世子嬪 柳氏, 1576~1623)를 왕비로 책봉하고, 원자 이제(元子 李 , 1598~1623)의 관례를 시행한 후 왕세자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의례이다.

18) 『祭器崇都監儀軌』 萬曆四十年五月 日 : 1611년(광해군 3) 9월부터 1612년 11월에 걸쳐 제기도감에서 영영전·종묘·각릉의 제기를 만들 때의 기록이다.

19) 『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萬曆四十三年乙卯 九月十三日 : 1615년(광해군 7) 6월부터 9월까지 선조빈 공빈 금씨(宣祖嬪 恭嬪 金氏, 광해군의 생모)를 추모(3년 상 뒤 종묘에 신주를 모시며 조성)하여 조성한 의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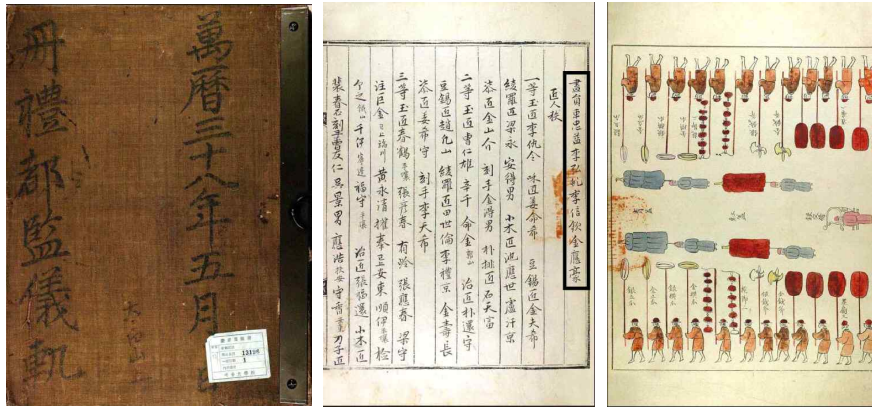
20)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萬曆四十四年三月 日 : 1616년(광해군 8)에 임진왜란 이후 각도 각부에서 보고한 효자 충신 열녀 등의 행실을 찬집(撰集)한 기록이다.

21) 『尊崇都監儀軌』 天啓元年十一月 日 : 존숭의례는 왕대비·대왕대비·왕·왕후에게 존호를 올린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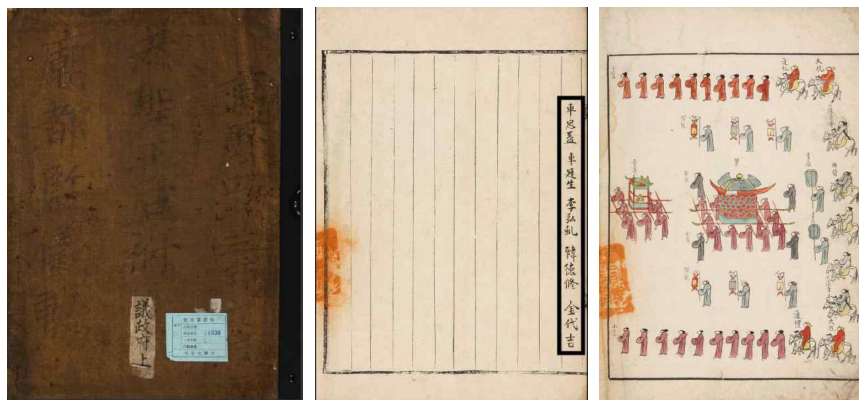
22) 『興慶園移葬時禮葬都監儀軌』 天啓七年十二月 日 : 1627년(인조 5) 인조의 아버지 원종(元宗, 1580~1619)을 흥경원(興慶園)에 이장할 때의 기록이다. 원종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며 인조의 아버지로 인조 즉위 후 일단 대원군에 추존되었다가 1632년 원종으로 추존되었다.

23)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崇禎八年乙亥三月日 : 1634년(인조 12) 7월부터 1635년 3월에 걸쳐 원종(1580~1619)과 인현왕후(仁獻王后, 1758~1626)를 혼전인 숭은전(崇恩殿)에서 태묘(太廟)에 부묘한 기록이다.

24) 『禮葬都監都廳儀軌』 順治二年乙酉六月 日 : 1645년(인조 23) 4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소현세자



도 2. 『의인왕후인목왕후상존호중궁전왕세자책례도감의궤』 필사본 1책407면/199장, 1610년(광해군2년), 저주지/흥포, 31면(채색), 반차도 39면(채색), 44.0×33.3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태백산/유일본) 中 표지, 177면, 379면.



도 3.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필사본 1책186면/88장, 1615년(광해군7년), 저주지/흥포, 2면(채색), 반차도 6면(채색), 44.5×34.2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성부/유일본) 中 표지, 142면, 177면.

(昭顯世子, 1612~1645) 장례에 관한 기록이다. 본 의궤는 1책 272장으로, 예장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날짜별로 수록하였다. 특히 품목 항목에는 사용된 물품(所用物目)을 채색화(彩色圖)로 제작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25) 『冊禮部監王世子及嬪宮冊禮儀軌』 順治二年乙酉九月二十七日: 1645년(인조23) 효종(1619~1659)과 인선왕후 장씨(1618~1674)를 세자와 세자빈으로 책봉한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4월 26일 소현세자가 급서하자, 인조는 윤6월 2일 차자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명하였다. 본 의궤는 다음날인 3일 책봉의식 준비와 관련한 의궤이다.



도 4. 『광해군존숭도감의궤』필사본 1책 392면/191장, 1621년(광해군13년), 저주지/종이, 15면(채색), 반차도 14면(채색), 45.1×35.4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강화부) 中 표지, 366면, 379면.

40세에 정미사행의 수행화원으로 활약했다. 이후 국내활동은 주로 의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차충익(車忠益)과 함께 활동한 1610년 『의인왕후인목왕후상존호중궁전왕세자책례도감의궤』와 1615년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그리고 고득생(高得生)과 함께 활동한 1621년 『광해군존숭도감의궤』는 화원 차충익 혹은 고득생 다음으로 이홍규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²⁶⁾ 이는 의궤를 제작함에 있어 주요한 화원으로 이름을 올렸음을 증명하는 바이며, 의궤 꽃인 반차도(班次圖)를 통해 어느 정도 이홍규의 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²⁷⁾ 당시 차충익과 고득생과 같은 첫 화원이 반차도의 구성과 총괄을 맡았을 것이고 이홍규는 그 다음 중차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현재 『의인왕후인목왕후상존호중궁전왕세자책례도감의궤』와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는 유일본이다.²⁸⁾

26) 『醫科榜目』 따르면, 차충익(車忠益)은 도화서교수를 지냈으며, 의궤치출기록만 무려 16회에 이른다. 생몰년은 미상이고 아들 차정원(車挺元)은 화원가문을 잇지 않고 의과(醫科)로 훈도(訓導)를 지냈다.

27) 유세림, 「외규장각 어람용 의궤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기초적 연구」, 『조선시대사학보』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51-55쪽 : 이홍규가 참여한 반차도는 현재 어람용(御覽用)은 남아 전하지 않고 태백산, 한성부, 강화부와 같은 분상용(分上用)이 현존하고 있다.

28)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懿仁王后尊號大妃殿上尊號中宮殿冊禮王世子冊禮 冠禮時冊禮都監儀軌』, 청구기호 <奎 13196>, M/F 78-103-382-E, 유일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청구기호 <奎 14939>, M/F 78-103-343-A 유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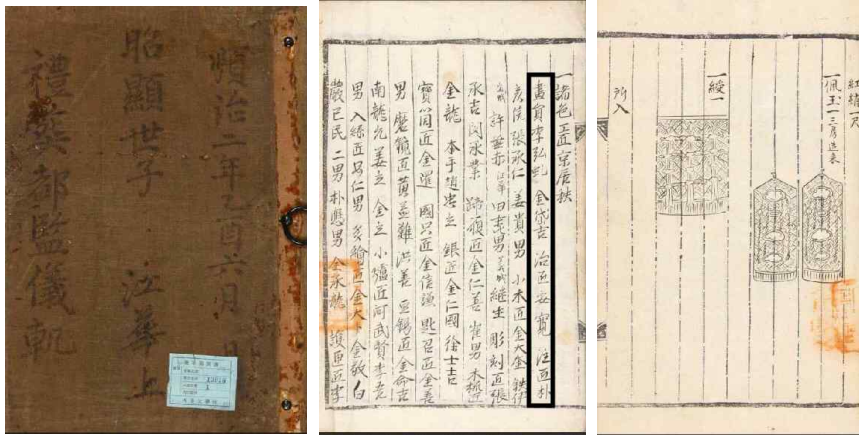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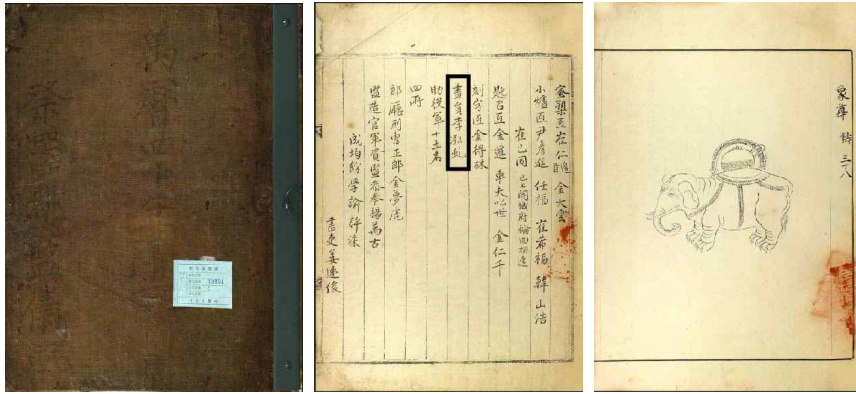


그림 5. 『소현세자에장도감의궤』 필사본 1책 546면/272장, 1645년(인조23년), 저주지/홍포, 32면(채색), 반차도 24면(채색), 35.8×25.1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中 표지, 540면, 335면.

이홍규가 참여한 의궤 중 그의 이름이 회원명단에서 가장 첫 이름으로 기록된 의궤는 무엇일까. 바로 1645년 참여한 『소현세자에장도감의궤』이다. 아울러 이 의궤는 이홍규의 마지막 활동 기록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 이홍규는 78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원으로 활약했다.

해당 의궤는 소현세자 장례를 기록한 의궤이다.²⁹⁾ 이 의궤 외에도 1612년 참여한 『제기도감의궤』와 1645년 참여한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가 있다. 이중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은 앞에서 언급한 『소현세자에장도감의궤』와 동일한 1645년도에 함께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홍규의 나이, 78세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두개이상의 의궤제작에 참여 한 점 등을 미뤄보아 도화서 내 중요한 회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이를 통해 이홍규가 78세까지는 건강하게 회원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²⁹⁾ 『昭顯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奎 13918>, M/F 82-35-73-B 장서각 소장 <2-2965> 파리국립도서관 <2572>와 동일종: 현존하는 책례도감의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후대 의궤들에 비해 다소 체계가 정돈되지 못한 느낌을 주지만, 조선시대 世子 및 世子嬪 冊封 의식에 대해 매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소요 물품 제작 및 물자 조달 과정, 각종 물품의 규격과 물품별 소요 물자의 종류 및 수량, 동원 인력의 내역 및 그 운용 방법, 관련 관청 간 업무 협조 과정, 의식의 제반 절차 등, 행사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도 6. 『효종왕세자금빈궁책례도감의궤』 필사본 1책280면/138장, 1645년(인조23년), 저주지/홍포, 16면(채색), 45×34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태백산) 中 표지, 259면, 187면.

활동했던 조선중기는 도화서 화원에 대한 기록이 매우 드문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흥규의 이름이 사적(史籍)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의 화원으로서의 자질과 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이후 이흥규의 의궤참여 연도와 횟수³⁰⁾

	이전	사행 이후								
년도	1605	1608	1610	1612	1615	1616	1621	1627	1635	1645
횟수	1	1	2	1	1	1	1	1	1	2
총	1	10								

<표 4>는 이흥규의 국내활동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궤 참여연도를 사행 이전과 사행 이후로 정리한 것이다. 그의 활동이 사행 이후에 보다 더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수행화원으로서의 활동이 이후 도화서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기회로 작용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조선통신사행은 이흥규에게 사행 이후 화원으로서 명성을 강화시킨 주요한 경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흥규의 이름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서도 살필 수 있다. 사료에 의하면, 정미사행 이후 이흥규는 1619년 회회청 안료를 수입하는 일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던 일이 있다.³¹⁾ 당시 창경궁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 단청채색을 중국으

³⁰⁾ ,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研究』, 慶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134쪽, 표21 보완, 재구성.
³¹⁾ 『光海君日記』139卷, 十日年(1619 己未) 四月 十七日(庚午): “此彩色, 命下累年, 無意質來 矣, 而李弘蚬 盡心質來, 極爲可嘉, 參酌施賞.”

수입하기 위해 『선수도감(繕修都監)』에 소속된 화원을 의주(義州)로 파견하여 수입하는 일을 주관토록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의주 부윤(府尹)은 화원을 요동으로 보내어 직접 채색을 구해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올렸고 왕의 윤허를 얻었다.³²⁾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채색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화원은 이홍규였다. 이처럼 회회청을 무역한 공로는 그의 역량이 높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그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겠다. 이후 도화서 내의 그의 입지도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 이로써 자신의 집안이 비중 높은 화원가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의 역할이 특히 컸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임진년 전쟁 이후 조·일간 교류를 위해 파견된 조선통신사, 그 중에서도 문화적 교류의 주축을 담당했던 수행화원 이홍규에 관해 살펴보았다. 문한(文翰)을 숭상했던 조선사회의 특성상 화원들에 대한 기록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지만, 현전하는 자료를 토대로 수행화원 이홍규의 행적을 재구성해 보았다. 그의 행적 가운데 정미사행 이후의 활동을 핵심으로 두고, 사행을 전후한 시기와 그 당시의 행적을 함께 살펴 보았다.

조선통신사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크게 외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나뉘는데, 문화적 교류의 측면에서 화원의 역할은 매우 비중이 큰 것이었다. 따라서 이홍규는 한 개인의 화가로서보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원이라는 공적 입장에 있었고, 그의 활약도 그런 범주 내에서 평가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수행화원의 행적의 범주를 좀 더 확산시켜 그들의 가문적 배경과 도화서 내에서의 활약까지 두루 조망해 봄으로써 수행화원 이전 이후의 내연적·외연적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정미사행(1607) 이홍규 연구는 조선회화사의 비중에서 볼 때도 단지 수행화원으로 평가되기 이전에 조선의 대표적 화가로서 평가되어야 마땅한 인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 관련된 자료로 남아 전해지는 것은 소략하다. 그러므로 통신

³²⁾ 『光海君日記』 103卷, 八年(1616 丙辰) 五月 四日: “昌慶宮 營建時, 所用唐彩色貨來事, 去四月初一日, 別定畫員, 齎持價銀, 送于 義州, 而今見 義州 府尹所報以爲: 鎮江 等處, 絕無彩色有處, 不得已當買於 遼東, 而無越江諭書, 不得擅送貨來 云 明政 文政 兩殿丹青, 今方始役, 彩色不足, 日望 義州 貨來之期, 而 義州 所報如此 彩色未得趁貨, 則勢將停役, 極爲悶慮, 以此意下諭 義州 府尹, 急送都監畫員于 遼東, 使之趁時貨來何如.”

수행회원으로서 그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곧 그의 회화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 2015년 7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9일 ■

참고문헌

< >

『宣祖實錄』

『惺所覆瓿藁』

『宣祖國葬都監一房儀軌』

『宣祖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懿仁王后仁穆王后上尊號中宮殿王世子冊禮都監儀軌』

『恭聖王后祔廟都監儀軌』

『祭器都監儀軌』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光海君日記』

『光海君尊崇都監儀軌』

『元宗禮葬都監儀軌』

『元宗大王仁獻王后祔廟都監儀軌』

『昭顯世子禮葬都監儀軌』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

『[仁祖]國葬都監都廳儀軌』

『通文館志』

『醫科榜目』

<국내>

신영훈, 「儲承殿重修工事와 畫員 金明國」,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69.

안휘준, 「高麗 및 朝鮮初期의 對中繪畫交流」, 『亞細亞學報』 13, 1979.

안재욱, 「蓮潭 金明國의 生涯와 繪畫世界」, 弘益大 碩士學位論文, 1982.

이태호,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정선 眞景山水의 先例로서 17세기의 實景圖」, 『精神文化研究』 3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중앙일보사, 『山水畫(上)』: 안휘준, 『韓國繪畫史研究』, 1990.

이건상,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雪灘 韓時覺의 實景山水畫」, 國立中央博物館, 1993.

서울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人物篇), 1993.

홍선표,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畫員의 派遣과 役割」, 『韓國美術史學會』 205,

, 1995.

- 오세창, 『權域書畫徵』, 한국미술연구소, 시공사, 1998.
- 홍선표, 「朝鮮後期 通信使 隨行畫員의 繪畫活動」, 『美術史論壇』6, 한국미술연구소, 1998.
- 임덕수, 「蓮潭 金明國의 禪畫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9.
- 안휘준, 『韓國繪畫史研究』, 韓國美術研究所, 시공사, 2000.
- 신병주 외, 『파리 國立圖書館 所藏 外 奎章閣儀軌 조사연구』, 외통부, 2003.
- 강민기, 「近代 轉換期 韓國畫壇의 日本畫 유입과 수용 : 1870년대에서 1920년대 까지」,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5.
- 권혜은, 「朝鮮後期<槎路勝區圖畫集>의 作者와 畫風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 김종수, 「1645년(인조23) 왕세자 책봉과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례」 『奎章閣 所藏儀軌 해제집』3, 서울대 奎章閣, 2005.
- 서윤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005.
- 한영우, 『朝鮮王朝 儀軌』(국가의례와 그 기록), 一志社, 2005.
- 안휘준, 『朝鮮 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2006.
- 유근형, 「朝鮮時代 南畫가 近代美術에 미친 영향에 대한 研究」, 京畿大教育大 碩士學位論文, 2006.
- 한의정, 「연담 김명국의 작품연구」, 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 박경목, 「연담 김명국의 회화적 특성」,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 이경화, 「北塞宣恩圖 연구」, 『미술사학연구』254, 韓國美術史學會, 2007.
- 이훈상·손숙경 역(Edward Wagner 저),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 이현주, 「한류의 시초 :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李聖麟의 사모승구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2008.
- 황은영, 「1811년 신말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에 대하여」, 『강원대학교 강원사학』 22·23, 2008.
- 이정은, 「朝鮮通信使 隨行畫員 研究」, 慶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 김나영, 「서암 김유성의 회화 연구 (西巖 金有聲의 繪畫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
- 이정은, 「金明國의 丙子·癸未通信使行 활동작품 분석」, 『인문논총』27, 경성대학

인문과학연구소, 2011.

_____, 「乙未通信使行 隨行畫員 韓時覺의 行蹟 및 活動」, 『조선통신사연구』12, 2011.

정은주, 「계미(1763)통신사행의 화원 활동 연구」, 『정신문화연구』34권 2호 통권123호, 2011.

_____,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 문화연구』6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위순선, 「다니 분초[谷文晁](1763~1840)를 倣한 이의양의 산수화」, 『조선통신사연구』19, 조선통신사학회, 2015.

Abstract

Painter Lee Hong-Kyu Whereabouts and Activities after the Jeongmi Dispatch

Lee, Jeong-Eun

This dissertation explores a comprehensive study of painter Lee Hong Kyu accompanied by Jeongmi Dispatch who are dispatched to Japan in the late Jeongmi Dispatch. This study deals with the family backgrounds, domestic activities, and the role as painter accompanied by Tongsinsa. Additionally, it covers again their domestic activities after coming back from the dispatch.

The activities of painters accompanied are recorded in Record of Dispatch.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traces of those painters and examines their painting remaining in Record of Dispatch in terms of pattern. Their activities during the dispatch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ir domestic activities after coming back to Korea, which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y participate in making national ceremonial archives. Those painters are more frequently drafted to the position of making national archives after coming back from the dispatch. In other words, any painter who participates in making national ceremonial archives becomes the best painter in Court Academy of Painting. By means of this power, they make it possible to select their relatives as painters accompanied by Tongsinsa. The draft of painter accompanied c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building famous painting families.

Key Words : Lee Hong Kyu, Jeongmi Dispatch, Painter accompanied by Tongsinsa